

광주·전남 유가 중동 분쟁으로 상승세

4개월 연속 하락에서 전환...국제유가 하루만에 5~7% 급등
이란 호르무즈 봉쇄시 휘발유 l 당 1700원대까지 폭등 우려

잠시 잠잠했던 광주·전남지역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스라엘-이란 간 '중동 분쟁'에 따른 것으로, 유가가 다시 17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유가는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광주·전남 유가는 올 2분기 들어 하락세를 보여왔다.

앞서 지난 2월 1일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은 1l 당 각각 1719원, 1731원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 전환해 6월 11일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15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지역 소재 주유소의 경우 평균기도 1590원 선에서 1490원선까지 100원가량 하락했

다. 보험세를 제외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6월 2주차까지 5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5~7% 급등했다.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도 1당 3~7원 가량 오르는 등 국내유가 상승세가 일부 반영된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면 2주 정도 지나 국내유가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폭이 커 즉시 상승 전환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 당 72.49달러로

하루 전 (68.57달러)보다 5.7% 급등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을 돌파했다.

브렌트유도 배럴 당 69.36달러에서 74.23달러로 7.0%,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 당 68.04달러에서 72.98달러로 7.3%씩 대폭 뛰었다. 이번 국제유가 하루 상승폭은 2022년 3월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세계 원유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산업계에선 '오일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에 충격파가 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2000만배럴의 원유와 석유가 통과하고 있으며, 해협이 실제로 차단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 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전력사업 이해증진 청소년 에너지캠프

목포 영흥중학생 30명 참여

한국전력공사(한전) 목포지사는 “지난 10일 지역 내 공공기관 진로를 희망하는 영흥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력사업 이해증진 청소년 에너지캠프'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포지사와 목포 전력지사의 현장 전문가들이 송·배전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영업창구 및 남악변전소 견학 등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또 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전력의 생산부터 각 가정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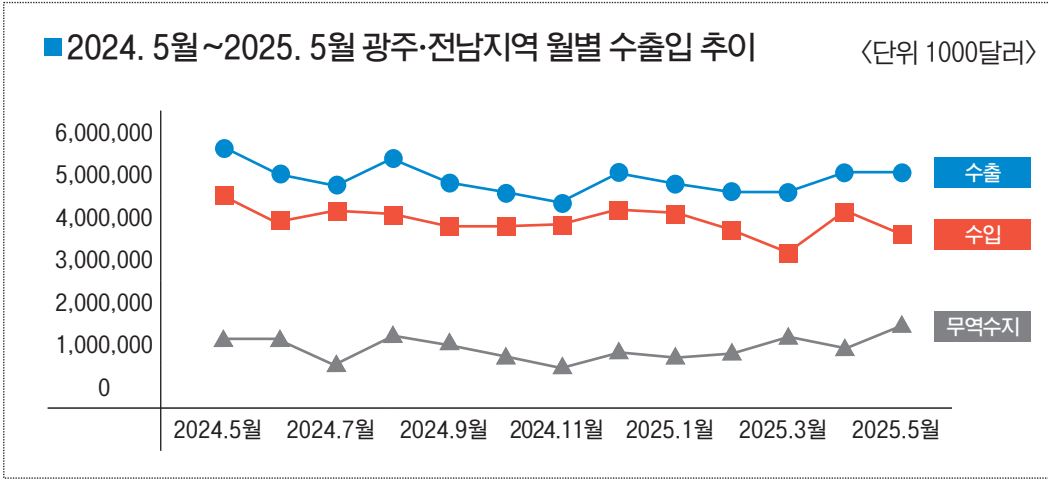
내는 과정과 전력망의 구조 및 건설해야 하는 이유, 지자체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 노력, 소외계층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참여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진로 설계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조언했다.

한전 목포지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목포 전력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진로를 희망하는 지역 인재를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력망 건설 등 전력사업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수 먹거리 만나 보세요”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다양한 여수 먹거리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9일까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여수 먹거리 특집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찹쌀떡 브랜드 '고마리'가 딸기 찹쌀떡, 포도 찹쌀떡 등 여수의 대표 간식인 찹쌀떡들을 내놨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5월 광주·전남 수출 10% 이상 감소

미국발 관세 여파

수입 더 줄어 무역수지 흑자

지난달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흑자를 기록한 반면 수출은 미국발 관세 여파 등으로 감소했다. 광주는 가전제품·타이어 등의 수출이 줄었고, 전남은 화공품과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 수출은 50억 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줄었다.

수입은 18.9% 감소한 35억 6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4억 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15억 9700만달러였으며 수입은 16.0% 증가한 7억 300만달러로 무역수지 8억 9400만달러 흑

자를 기록했다.

기계류 (47.7%)·반도체 (26.6%)·수송장비 (10.8%) 수출이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 (-41.3%)·타이어 (-8.2%)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동남아 (26.8%)·중남미 (8.6%)·EU (5.7%)·미국 (1.9%)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전남지역 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8.7% 감소한 34억 1100만달러, 수입은 24.4% 감소한 28억 57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5억 54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기계류 (21.9%)가 증가했고, 화공품 (33.3%)·석유제품 (13.9%)·수송장비 (9.5%)·철강제품 (2.8%)은 감소했다.

전남은 EU (23.7%) 수출이 증가했고, 일본 (-26.2%)·동남아 (-23.6%)·중국 (-22.0%)·미국 (-2.2%)에서 감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기아 챔피언스 카드' 5000좌 돌파 기념 이벤트

팬북 제공·쿠폰 등 다양한 경품

광주은행은 “지역 연고 구단인 KIA타이거즈와 함께 출시한 '기아 챔피언스카드'가 발급 5000좌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오는 8월 31일까지 '압도하라! V13 Always KIA Champions Card'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참여할 수 있으며, KIA타이거즈 팬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는 6월 30일까지 기아 챔피언스카드를 1만원 이상

이용하면 선착순 2800명에게 KIA타이거즈 팬북을 제공한다.

이어 오는 8월 31일까지 기아 챔피언스카드를 월 2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매월 500명을 대상으로 GS편의점 모바일 쿠폰 5000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 중 매월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또 오는 7월 31일까지 카드 이용 금액 합산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라이프스 1일 이용권 (본인 포함 18인)'을 선불한다. 추첨 결과는 8월 11일에 발표하며, 이용권은 8월 24일 열리는 LG트윈

스와의 홈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세 가지 이벤트 모두 응모 절차 없이 카드 이용 실적만으로 자동 참여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방문, 광주 Wa뱅크 앱, 광주은행 홈페이지, KJ카드 헬프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철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지역 대표 구단인 KIA타이거즈와 협업을 출시된 기아 챔피언스카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점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혜택을 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쿠팡, '로켓직구 여름 ब्ल' 22일까지 상반기 할인행사

쿠팡은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상반기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로켓직구 여름 ब्ल 프 라이브이'를 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선호하는 800여개 글로벌 브랜드가 참여해 2만여종의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브랜드로 로지텍, 레노버, 샤오미, 나이키, 아디다스, 스케처스, 아식스, 반스, 레고, 헬시오리진, 가루비 등이 있다.

행사 기간 매일 인기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하루 특가 코너가 있다. 오소몰 이븐 멀티비타민, 스케처스 운동화, 샤오미 제습기, 레노버 태블릿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행사 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하면 10% 또는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매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주 구매할수록 혜택이 커진다고 쿠팡은 소개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반기 최대 규모의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며 “전 세계 인기 브랜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농어촌공사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나주배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 고용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언어 장벽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
이번 교육은 동신대 국제한국어학과와 협력해 기본 회화, 안전 수칙, 농작업 관련 실무 용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나주배원예농협 소속 필리

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구순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 문제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번 교육이 단순 언어교육이 아닌 상생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주담대 변동금리 더 떨어진다...5월 코픽스 0.07%p 하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8개월 연속 떨어졌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월(연 2.70%)보다 0.07%포인트(p) 낮은 2.63%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0.03%p 하락 이후 계속 내림세로, 2022년 6월(2.3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22%에서 3.14%로 0.08%p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2.76%에서 2.71%로 0.05%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46.66 (+52.04)
↑ 코스닥	777.26 (+8.40)
↑ 금리 (국고채 39년)	2.483 (+0.021)
↓ 환율 (US D) <오후 4시 54분 기준>	1360.35 (-9.25)